

광산구 채와라 다문화정책팀장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공무원상' 사회적가치 실현 분야 선정

채와라 광산구 다문화정책팀장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포상하는 이번 평가에서 채와라 팀장은 사회적가치 실현 분야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 유일한 포상자다. 2003년 공직에 입문한 채 팀장은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에 이로운 성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현재는 다문화정책팀장을 맡아 광산구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명예봉사단 구성·운영,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센터 추진 등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의 특색을 지역 경쟁력으로 살리고, 다문화가 상생하는 공동체 실현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 고려인마을을 '역사마을 1번지'로 세우는 데 공헌했다. 고려인동포의 역사와 문화에 빛을 비추는 월곡고려인문화관 운영, 흥남도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흥상과 기념공원 조성을 비



공헌했다. 고려인동포의 역사와 문화에 빛을 비추는 월곡고려인문화관 운영, 흥남도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흥상과 기념공원 조성을 비

트해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카라탈 군과의 우호·문화 교류 협약 체결 등이 대표적 성과다. 이에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채와라 팀장은 "수상의 영광을 동료 공직자, 사회통합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 준 외국인주민, 고려인동포, 유관기관과 단체들에 돌리고 싶다"며 "광주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광산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포토뉴스



조선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스 기부 동구는 지난 22일 조선대학교에서 관내 돌봄 이웃을 위해 19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300박스(1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조선대학교 총장과 교수, 학생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70명이 광주김치터전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려 포장해 후원했다. /김도기 기자



홈플러스 순천점, 왕조동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달 홈플러스 순천점은 지난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왕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케이크 30개와 장학금 45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케이크는 홈플러스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2012년 이후 11년째 진행 중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오비맥주, 빛고을장학금 1500만원 기탁

2지년 003년부터 5261명 대상 38억원 지원



광주시는 26일 오비맥주가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빛고을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비맥주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빛고을장학재단에 총 5억9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조일상 기자

인사

광주시

◇4급승진

▲복지정책과 김남주 ▲일자리정책과 송영희 ▲군공원이전과 김희석 ▲문화도시정책관 윤미라 ▲사회재난과 배상영 ▲자치행정과 이수빈 ▲산업혁신성장기획관 박선태 ▲문화도시정책관 송경희 ▲사회재난과 김세훈

◇5급승진

▲산업혁신성장과 구승연 ▲신활력

총괄관리수원 ▲여성가족과 김인숙 ▲경제정책관 이지연 ▲감사위원회 김정론 ▲문화도시정책관 조영주 ▲노동정책관 박희경 ▲청년정책관 조은영 ▲예산담당관 신선주 ▲자치행정과 주호연 ▲도시계획과 윤선숙 ▲기후환경정책과 진광호 ▲산업혁신성장과 이순형 ▲자치행정과 정진영 ▲문화도시정책관 박미영 ▲회계과 김상철 ▲차세대산업과 송윤태 ▲감사위원회 박환이 ▲건강정책과 장미선 ▲도시계획과 김승준 ▲도시계획과 김준미 ▲정보화담당관 진수산 ▲보건환경연구원 강경리 ▲상수도사업본부 박란

시교육청, 2024년 적용 개정 교육과정 설명 책자 보급

자율성 확대에 따른 교사 주도·협력·성찰 지원 이해자료



광주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어제-오늘-내일을 비추다' 리플릿을 개발해 관내 전체 초·중·특수학교로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등 학교 교육과정 자율

성이 확대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에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했다. 광주 관내 교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6회 이상의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의 흐름과 변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우리가 준비할 내용 등을 연구·정리해 이번 리플릿을 제작했다. 리플릿은 크게 교육과정의 '어제-오늘-내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꽤 오래 전 우리에게 주어진 교

육과정 자율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교육과정 자율성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나아가 교사의 주도성, 협력, 성찰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살과 연계된 수업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생', '전문성을 발휘하며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 '자율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를 실현하려면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리플릿은 12월 중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배부돼 2월 새학년 준비기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 자선당 장학금 지급

광주시 고등학교 재학생 23명에 총 3000만 원 지급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이 지난 22일 정원장학복지재단을 통해 가장 형편이 어려운 광주 시내 고등학생 23명에게 자선당(慈善堂)

장학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6일 승덕고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한 자선당 장학금은 기회균등 부문 14명에게 총 1400만 원, 사회적

배려 부문 7명에게 총 1400만 원, 효행 부문 2명에게 총 200만 원이다. 자선당 장학금은 청송학원 승덕고등학교와 정원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한 청송 김길수 선생의 배우자인 자선당 이군자 여사의 교육 철학을 기리기 위한 장학금이다. 특히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어려운 환경의 인재들을 동방으로 양성해나감을 그 취지로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이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도기 기자

순천 외서면 새마을부녀회, 김장김치 나눔

'사랑듬뿍, 정성듬뿍'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나기



순천시 외서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지난 22일 손꼽아 매설하게 시린 한파 속에서도 관내 어려운 이웃 등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이웃을 위해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지역에서 재배한 명품 외서절임배추로 김장김치 120박스를 담갔다.

행사를 준비한 회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서면 관계자는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다시 한번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장흥관산고, 2023수시모집 전원 합격

'작은학교의 큰 꿈 이뤄'...맞춤형 개별 대입 지도 성과



장흥관산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대학 입학에 3학년 진학 예정 학생 전원이 희망 학과에 합격하는 성과를 얻었다. 2022학년도 장흥관산고는 3학년 일반학급 학생 7명과 특수교육과 위탁교육 학생을 포함 16명, 2학년 16명, 1학년 16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일반고이다. 2021학년도부터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다양한 노력 및 학생 개인별 맞춤형 대입 지도와 수업 방법 변

화를 통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광주교대 2명, 사범대 1명, 보건대 3명, 군사계열 1명 등 대학 전원을 희망하는 학생 7명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광주교대에 합격한 김서연 학생은 "꾸준히 내신 관리를 해 주시고, 학교, 학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면접 지도를 해 주신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라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재)백운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초·중·고·대학생 412명 등 6억1575만 원 지급



(재)백운장학회는 지난 23일 광양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백운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장학금 수여자와 학부모, 장학회 이사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학회 이사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학회 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초·중·고·대학생 412명과 특기 지도 우수학교 7개교로, 총 6억 1575만 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수여자는 대학생 281명, 유학생 2명, 특기 장학생 33명, 선행 장학생 9명, 다문화가정 9명, 다자녀가정 59명, 지정 기탁(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19명이고, 예·체능 등 특기

분야 수상실적이 우수한 7개 학교에도 격려금이 지급된다. 수여식에 앞서 광양시 산림조합 1000만 원, ㈜신우전력 1000만 원, ㈜중주중합건설 500만 원, ㈜신광관유리 500만 원 등 4개 업체에서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는 2009년~2015년까지 백운장학금을 받아 광양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이주연 씨가 참석해 후배 장학금 수여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광양=조순익 기자